

擬話本小說 「莊子休鼓盆成大道」 연구

-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

신 은 경*

국문초록

「장자휴고분성대도」는 명나라 때 문인 풍몽룡이 지은 의화본 소설이다. 의화본은 기존의 話本을 읽기 위한 용도로 윤색하거나, 화본의 체제를 모방하여 讀物의 형태로 창작한 것을 가리키는데 화본처럼 입화-정화-결미로 구성된다. 이 작품은 여러모로 흥미를 유발하는데 이 글에서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이 작품에는 道家 사상가로서의 장자의 公的인 모습보다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私的인 면모가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 장자에 대한 시각이 입화·결미 부분과 정화 부분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화는 서술자가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에 비해 입화와 결미 부분은 설화인이 1인칭 시점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작자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장자의 모습이 정화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양상을 띠고 입화와 결미에서는 설화인의 목소리를 빌린 작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띤다. 그리하여 Ⅱ장에서는 ‘보여지는’ 장자의 모습에 Ⅲ장에서는 ‘말해지는’ 장자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보여지는’ 장자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는 부정망상을 지닌 남편의 모습이고 ‘말해지는’ 장자는 대도를 성취한 인물의 모습이다. Ⅳ장에서는 이같은 차이가 유발되는 동인으로서 작자 풍몽룡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장자, 풍몽룡, 경세통언, 입화, 정화, 결미, 설화인, 부정망상, 편집성 성격장애, 방어기제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장자 수용자로서의 풍몽룡 |
| II. ‘보여지는 장자’: 동아시아의 오셀로 | V. 나가는 말 |
| III. ‘말해지는 장자’: 大道를 이룬 인물 | |

* 우석대학교 교수 / fnsek@woosuk.ac.kr

I. 들어가는 말

「莊子休鼓盆成大道」- 이후 「장자휴」로 약칭 - 는 明末의 문인인 馮夢龍(1574~1646)의 擬話本 소설집 『警世通言』¹⁾에 실려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의화본’이란 기존의 話本²⁾을 읽기 위한 용도로 윤색하거나, 화본의 체제를 모방하여 讀物의 형태로 창작한 것을 가리킨다. 제목³⁾은 ‘장자가 동이를 두드려 큰 도를 이룬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목 속의 ‘子休’는 莊子(莊周)의 字이다.

일반적으로 의화본은 화본의 체제를 본떠 入話-正話-結尾로 구성이 되는데 입화는 기존의 시나 名句를 끌어와 이야기의 전체 방향 혹은 주제를 암시하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정화는 본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으로 보통 ‘話說’이라는 상투적 문구 다음에 이어지며 결미는 이야기나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하여 작자가 직접 논평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경세통언』에서는 보통 ‘有詩為證’ ‘詩云’ ‘歌曰’과 같은 상투어 다음에 오는 운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뜻의 ‘話說’까지가 입화에 해당하고, ‘有詩為證’(시가 있어 이를 증명한다) ‘詩云’ ‘歌曰’(시·노래는 이렇게 말한다)부터가 결미에 해당한다. 의화본은 화본의 체제를 본뜬 만큼 전체적으로 說話人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형식을 취하는데 설화인은 입화와 결미에서 이처럼 정화나 운문을 소개하는 상투어 혹은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장생이 동이를 두드린 이야기’(“如今說這莊生鼓盆的故事”)와 같은 문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장자휴」를 비롯한 『경세통언』의 이야기들은 설화인이 화자가 되어 이끌어 가는 전체 이야기 틀 안에 작은 이야기-「장자휴」의 경우는 장자가 동이를 두드려 도를 이룬 이야기-가 포함되는 ‘액자형 구성’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입화와 결미는 1인칭 서술에, 내부 이야기 정화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3인칭 시점의 서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장자휴」는 1인칭 → 3인칭 → 1인칭의 시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 1) 『警世通言』은 『醒世恒言』 『喻世明言』과 더불어 ‘三言’으로 불린다. 풍몽룡에 의해 출판된 의화본소설집으로 1624년에 간행되었으며 40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馮夢龍의 ‘三言’과 凌濛初(1580~1644)의 ‘二拍’(『初刻拍案驚奇』와 『二刻拍案驚奇』)은 대표적인 의화본소설집으로 꼽힌다. 풍몽룡은 ‘三言小說集’을 출판함에 있어 기존의 작품을 모아 약간 改編을 하거나 상당 부분 改作도 하는 한편 자신의 창작품을 수록하기도 했는데 「장자휴」의 경우 장자에 관한 고사, 장자의 저술인 『南華真經』,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무덤에 부채질하는 과부이야기’) 등을 자료로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창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풍몽룡은 기존의 작품을 ‘三言’으로 출판함에 있어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했는데, 내용면에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 형식면에서는 입화가 있고 그것이 정화의 내용을 암시하는 작품 위주로 선정을 했다.
- 2) 南宋代에 들어오면 시민계급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그들의 오락거리로서 說話業이 성행하게 되는데, 설화란 청중앞에서 講과 唱을 섞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관람료를 받는 흥행예술이다. 이때에는 ‘說話四家’라 하여 小說·說經·講史·說鐵騎兒의 네 가지가 크게 유행했다. 설화의 공연이 끝난 뒤 설화의 애호가나 상인, 관리, 문인, 書生, 藏書家, 출판인 등은 오락적·상업적 목적 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자신이 소장하여 즐기거나 하는 취미 차원의 동기를 가지고 공연 내용을 筆寫해 두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필사 기록물을 ‘話本’이라 한다. 宋·元 시기에는 문인 출신의 書會先生과 같은 전문적인 필사자가 있어 공연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설화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胡士瑩, 『話本小說概論』(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96~103쪽.
- 3) 『警世通言』의 제목은 「莊子休鼓盆成大道」처럼 ‘누가(주인공) 어떤 일을 하다’와 같이 正話의 내용을 암축하는 표현으로써 대개 7자나 8자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제목을 보면 그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장자휴」는 개별적 논의는 별로 없지만 여러모로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인데 이 글에서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이 작품에는 道家 사상가로서의 장자의 公的인 모습보다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私的인 면모가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鼓盆”은 『莊子』 「至樂篇」에 실려 있는 일화⁴⁾에 나오는 것으로서 오늘날 아내를 여인 슬픔을 나타내는 ‘鼓盆之痛’ ‘鼓盆之歎’의 유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단순히 장자가 도를 이룬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도를 이룬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제목은 이 작품이 아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이야기이며 남편으로서의 장자의 모습에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부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正話에서 보이는 남편으로서의 장자의 모습이 흔히 의처증 또는 오셀로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不貞妄想’(Infidelity delusion)의 면모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점은 Ⅱ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논점은 장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작자의 개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입화·결미의 어조가 정화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화는 3인칭 시점에서 莊生이라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장자의 모습을 그린다고 한다면 입화와 결미에서는 설화인의 목소리를 빌린 작자가 1인칭 시점에서 장자에 대해 말을 한다.

이 두 논점을 중심으로 Ⅱ장에서는 정화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장자의 면모에, Ⅲ장에서는 입화와 결미에서 ‘말해지는’ 장자의 면모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동일 인물의 ‘보여지는’ 모습과 ‘말해지는’ 모습을 하나의 서사물로 생산해 낸 기획자로서의 풍몽룡의 의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점은 풍몽룡의 ‘장자 수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작품의 개략적 줄거리를 소개한다.

장자는 남편이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과부가 빨리 개가를 하고 싶어 남편의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덤이 빨리 마르도록 과부 대신 부채질을 해 준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 아내 전씨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과부를 비난하자 장자는 여러 차례 전씨의 속을 떠보려 시험을 한다. 전씨가 끝까지 자신은 그 과부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장자는 도술을 써서 죽음을 가장한 뒤 젊은 미남자 문상객으로 변신하여 전씨를 찾아온다. 전씨는 젊은 문상객에게 한눈에 반하여 인연을 맺고자 하나 상대 쪽에서 둘의 결합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일단 거절을 한다. 문제 중 하나가 젊은 공자가 병이 들었는데 낫기 위해서는 사람의 골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몸이 단 전씨는 죽은 사람 골수도 괜찮냐고 물으며 죽은 남편의 시신에서 골수를 꺼내자고 하는데 그 순간 장자는 도술로써 자신의 본래 모습과 젊은 공자의 모습을 동시에 전씨 앞에 나타내 보인다. 수치심에 전씨는 목매어 자결을 하고 장자는 인생사의 이치를 깨닫고 『도덕경』과 『남화진경』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불태운 뒤 세상을 주유하다 大道를 성취한 뒤 仙化했다고 한다.

4) 장자의 아내가 죽자 혜자가 조문을 가보니 그는 때 마침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에 혜자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고 자식을 키우면서 함께 늙은 사이가 아닌가. 그런 아내가 죽었는데도 뭇을 하기는커녕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더니 좀 심하지 않은가?’하고 말하자 장자가 자신이 아내의 주검 앞에서 울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는 일화이다.

Ⅱ. ‘보여지는 장자’: 동아시아의 오셀로

장자부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正話는 인물간의 대화와 이 대화를 중재·연결해 가는 서술자의 서술로 이루어진다. 입화나 결미에 비해 정화는 작자의 직접적 개입이 적다고 하겠는데 정화 내에서도 인물의 대화나 행동에는 작자의 목소리가 개입될 여지가 더욱 적다. 물론 인물을 설정하고 인물에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작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지만 인물의 대해 직접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개입의 정도 혹은 가능성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작자에 의한 포장이나 美化가 적은 인물의 대사 및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장자의 모습을 심리면에 중점을 두고 살피고자 한다. 정화에 삽입된 운문은 인물의 대사에 해당한다.

정화 부분은 과부가 남편 무덤에 부채질하는 이야기인 ‘寡婦搨墳談’, 이야기 속 인물 莊生이 집에 돌아와 아내를 시험하는 이야기인 ‘莊生試妻談’, 그리고 그 결과로 장생이 큰 도를 이루게 되었다는 ‘莊生成道談’의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과부선분’은 ‘장자시처’의 계기가 되고, 장자가 아내를 시험하여 아내가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은 그가 인생무상을 깨닫고 道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세 구성단위는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寡婦搨墳 → 莊生試妻 → 莊生成道와 같은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건 전개에서 핵심이 되는 두 축은 莊生 - 정화에서 장자는 장생으로 칭해진다 - 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했다는 것과 그 의심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장생의 의심은 무덤에서 부채질하는 젊은 과부를 목격한 것이 발단이 된다. 집에 돌아와 자신이 본 것을 얘기하자 아내 전씨는 ‘저런 여자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며 젊은 과부를 심하게 비난한다. 이에 대해 장생은 다음과 같은 시구를 읊어 아내의 심중을 떠보기 시작한다.

- | | |
|-------------|---------------------------------------|
| (1) 生前個個說恩深 | 살아있을 때는 일일이 은혜 깊음을 말하다가 |
| 死後人人欲搨墳 | 죽은 뒤에는 사람마다 부채로 무덤을 부치네 |
| 畫龍畫虎難畫骨 | 용과 범을 그리되 뼈는 그리기 어렵고 |
| 知人知面不知心 | 사람의 겉모습은 알되 마음은 알기 어렵도다 ⁵⁾ |

이에 대해 전씨가 몹시 화가 나서 남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사람마다 류가 다른데 어찌 가볍게 이런 말을 하는가. 나를 같은 류로 보느냐고 하자 장생은

- (2) 빈 말 하지 마시오. 만일 불행히도 내가 죽으면 저렇게 꽃같고 옥같은 나이에 삼 년, 오 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로다.⁶⁾

라고 응수한다. 전씨가 ‘忠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二夫’라고 하면서 자신이 만일 일을 당하면 저런 파

5) 작품의 원문은 『警世通言』(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6)에 의거하였다.

6) “莫要彈空說嘴 假如不幸我莊周死後 你這般如花似玉的年紀 難道捱得過三年五載。”

렴치한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3년 5년은 고사하고 평생 꿈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자 장생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도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도다’⁷⁾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남편의 완고함에 발끈한 전씨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출한다.

(3) 지조가 있는 부인은 남자보다 낫습니다. 당신같이 물인정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은 한 아내는 죽고 한 아내는 내진 뒤 다시 새 아내 맞아들였으니 다른 사람도 모두 식견이 일반인 줄 아는군요....(중략)...당신이 이제 죽지 않으면 부질없이 사람을 죽이겠구려.⁸⁾

이상 두 사람간의 대화를 통해 장생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단 자신이 죽었을 때의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그 때 전씨가 보일 행동을豫斷하여 그 전제 하에 전씨를 정절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말은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융통성없고 고집스런 성격과 상대를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와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과대주의적 사고를 반영한다. 과대주의는 자신의 부적절성이나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부인하고 그것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며 자신의 견해는 항상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초로 사용된다.⁹⁾

여러 말로 시험을 해도 전씨가 자신의 말에 넘어가지 않자 장생은 마지막으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병세가 이러하니 죽음이 조석에 있을 것같소. 그 비단부채를 두었다라면 내 무덤을 부치게 할 수 있었을텐데 찢어 버렸으니 애석하구려’¹⁰⁾라고 하며 최강수의 함정을 판다. 우리는 이같은 장생의 행동으로부터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여 부도덕한 방법으로 증거를 찾으려 하는 의치증 혹은 不貞妄想을 가진 남편의 모습의斷片을 발견하게 된다.

不貞妄想은 희곡 「오셀로」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오셀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의 부정 특히 性的인 면에서의 정절을 반복적으로 의심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찾고자 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통은 의치증·의부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투망상’(jealousy delusions)이라 하기도 한다. 이는 정신의학에서 妄想障礙(Delusional Disorder)의 일종으로 간주되는데 망상장애란 현실세계의 현상·사건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 즉 망상을 진실로 믿고 이에 집착하는 정신증의 일종이다.¹¹⁾

의치증을 가진 남편으로서의 장생의 면모는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

7) “田氏道 忠臣不事二君 烈女不事二夫 那兒好人家婦女喫兩家茶睡兩家床 若不幸輪到我身上 這樣沒廉恥的事 莫說三年五載 就是一世也成不得. 夢裡也還有三分的志氣. 莊生道 難說難說.”

8) “有志婦人勝如男子 似你這般沒仁沒義的 死了一個又討了一個 出了一個 又納一個 只道別人也是一般見識. …(中略)…你如今又不死 直恁枉殺了人.”

9) 윌리엄 마이쓰너, 『편집증과 심리치료』(이재훈 옮김, 1998), 301쪽.

10) “我病勢如此 永別只在早晚. 可惜前日絢扇扯碎了. 留得在此 好把與你擲墳.”

11) 과거에는 ‘~장애’ 대신 ‘~증’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편집증’(paranoia)이라고도 한다.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 제4판(DSM-IV)에서는 17가지 형태의 정신장애를 제시하고 있는데 망상장애는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증 장애 속에 포함된다. 망상장애에는 부정망상 외에도 관계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색정망상, 신체망상 등이 있다.

기 위해 도술로써 갑작스런 죽음의 상황을 설정하고 초나라 왕손인 젊은 미남자 問喪客으로 변신하여 전씨 앞에 나타나는 장면, 전씨가 초나라 귀공자를 유혹하여 결혼식을 하려 할 때 그 앞에 나타나 ‘남편이 죽었는데 왜 상복 대신 채색 비단옷을 입었느냐’ ‘관을 왜 본래 자리에 두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장면에서 절정을 보인다.

당황한 전씨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장생을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지려 하자 장생은 분신술을 써서 자신의 본래 모습과 초나라 공자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뒤 다음과 같이 전씨의 不貞하고 부도덕한 행실을 비난하고 모욕을 준다.

- | | |
|-------------|---------------------------|
| (4) 夫妻百夜有何恩 | 백년 부부가 무슨 은혜가 있으리오 |
| 見了新人忘舊人 | 새 사람을 보고 옛 사람을 잊었도다 |
| 甫得蓋棺遭斧劈 | 거우 입관했다가 도끼로 쪼개버렸나니 |
| 如何等待掘乾墳 | 부채질하여 무덤을 말리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장생의 ‘의심증’ ‘비난하기 성향’ ‘공격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아내를 향해 있기 때문에 부정망상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넓게는 일반적인 妄想障礙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로 볼 수 있다. 장생은 귀가길에 하루빨리 改嫁하고 싶어 남편 무덤에 부채질하는 젊은 여인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이 자기 아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마음은 단순히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가면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장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불안에 대항하는 심리적 장치가 된다. 장생의 행동에서 보이는 ‘의심하기’와 ‘비난하기’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자기자신에 대한 ‘과대주의적 심리’는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 특징으로서 불안에 대처하는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¹²⁾

또한 장생의 행동에서 남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경향과 더불어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공격적 성향도 발견된다.¹³⁾ 위에 인용한 시는 젊은 과부의 행실과 전씨의 행실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녀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궁지로 몰아넣는 공격성을 반영한 것이며 장생은 ‘언어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낀 전씨는 자살하고 마는데 이는 분명 장생이 전씨에게 가한 ‘언어폭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정망상의 모델이라 할 오셀로의 경우 아내의 육신을 살해한 것이라면 장생은 언어에 의한 ‘정신적’ 살해를 한 셈이다. 이같은 공격성은 권위를 중시하여 관습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극도로 징벌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집적 성향의 사람¹⁴⁾이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꼭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 부정망상 환자들에게서

12) 윌리엄 마이쓰너, 앞의 책, 299~300쪽.

13) 위의 책, 128쪽: 李鉉洙, 『異常行動의 心理學』(大旺社, 1976·1988), 451~452쪽. 이현수는 정신분열증을 單純型, 破瓜型, 緊張型, 妄想型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망상형의 특징으로서 의심이 많고 공격심이 강하며 비정상적 행동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4) 윌리엄 마이쓰너, 앞의 책, 313쪽.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있어 배우자의 부도덕성은 관습적 가치의 위반이라는 점에 있어 최고봉에 놓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생이 허물이 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아내를 내쫓았다고 하는 것¹⁵⁾ 또한 배우자에 요구되는 관습적 가치를 위반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장생의 행동에서 망상장애의 일종인 피해망상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장생은 전씨를 시험하기 위해 초나라 공자로 변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남자의 병의 치료를 위해 죽은지 얼마 안되는 시신의 골수가 필요하다는 설정을 하여 전씨로 하여금 자신의 골수를 꺼내도록 유도한다. 이 대목은 평소 장생이 전씨나 미래에 그 상대가 될 다른 남자에 의해 자신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무의식적 피해망상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사건 전개 및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장생의 망상적 성향은 현실 왜곡을 바탕으로 한다. 망상이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 왜곡이 기저에 자리한다.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망상장애를 가진 경우는 자신의 현실을 어떤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조직화한다는 특징이 있다.¹⁶⁾ 장생의 경우 부채질하는 젊은 과부를 목격하고 그 상황을 아내에게 대입하여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과부처럼 아내도 쉽게 정절을 버릴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결국은 부도덕한 방법을 써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고착시킨다. 이처럼 자신이 목격한 현실을 아내의 정절을 시험한다고 하는 필요성에 따라 해석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수치심에 전씨가 목을 매어 죽은 뒤 장생은 크게 웃으며 동이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뒤¹⁷⁾ 다음과 같은 시를 읊는다.

(5) 你死我必埋	그대가 죽었으니 나는 필히 묻어주겠지만
我死你必嫁	내가 죽었더라면 그대는 틀림없이 再嫁를 하리로다
我若真個死	만일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
一場大笑話	그야말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테지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전씨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장생의 모습, 자신이 판단을 잘 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안도하며 자신의 예지력을 과신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인 전씨의 죽음에 대하여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시신 앞에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심이 많고 타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성, 자기자신에 대한 과신, 정서적 유대감의 결여,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봐 긴장과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 등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의 증상과 거의 일치한다.¹⁸⁾ ‘망상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는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체

15) 장생은 세 번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병들어 죽고 두 번째는 허물이 있어 내쫓았으며 전씨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第一妻得疾死亡 第二妻有過被出 如今說的是第三妻姓田乃田齊族中之女.”

16) 윌리엄 마이쓰너, 앞의 책, 299~300쪽.

17)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괴이한 행동은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의 한 특징이다. 이현수, 앞의 책, 451쪽.

계에서 서로 다른 축에 배치¹⁹⁾되어 있지만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장생의 심리적 성향을 파악함에 있어 장생의 행동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장생이 무덤에 부채질을 하는 젊은 과부를 보고 먼저 말을 건네고 부채질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도 대신 부채질을 해 준다고 자칭하는 대목이다. 장생은 덕이 높은 것으로 이름이 높아 제나라 종실에서 딸을 시집보낼 정도이고 초나라에서는 예를 갖추어 재상으로 초빙할 정도의 인물이다. 그런데 해당 장면은 덕이 높은 군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단지 젊은 여인과 희롱하는 나이든 남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여기에 세 번째 아내인 전씨가 자색이 뛰어나다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린 풍몽룡이 아무리 ‘장생이 비록 好色의 인물은 아니지만 부인을 사랑하여 둘의 모습이 마치 물과 물고기같았다’²⁰⁾고 옹호를 하고 있다 해도 장생은 오히려 색을 밝히는 인물 적어도 아내 아닌 이성에 관심이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투사’(projection)라고 하는 정신의학적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란 인간이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충동들을 타협시키며 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기술²¹⁾을 말한다. 그 중 ‘투사’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속성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여기는 심리작용²²⁾이다. 젊은 과부를 향한 그의 말과 행동은 장생의 내면에 자리한 성적 충동을 보여 준다. 그 성적 충동은 덕이 높은 군자로 칭송받는 자신의 입지와 어긋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이기에 의식 차원에서의 장생은 그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전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씨가 부도덕하고 남편이 죽으면 곧바로 개가할 여자라고 치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할 비난의 화살을 전씨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젊은 과부를 둘러싼 장생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투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자존감을 유지’²³⁾하고자 하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남편 장생에 대한 전씨의 불만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6) 우리 先夫가 무슨 도덕이 있는 어진 선비란 말이나? 당초에 집안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아내를

18)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대해서는 李鉉洙, 앞의 책(341~342쪽) 및 최정윤·박경·서혜희, 『이상심리학』(학지사, 2000·2017, 79~82쪽)에 의거함.

19)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 여러 판들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4판(DSM-IV)은 여러 개의 축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 변별되는데 이에 의하면 1축에는 2축에 포함된 성격장애와 정신지체를 제외한 14개 범주가 포함된다. 3축에는 전반적 신체상태에 관한 것, 4축에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문제에 관한 것이 내용을 이룬다. 정신장애의 진단은 1축과 2축이 주를 이루는데 총 16가지 형태의 정신장애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망상장애’는 1축에 제시된 ‘정신분열 중 및 기타 정신증 장애’의 한 유형으로, ‘편집성 성격장애’는 2축에 제시된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상 DSM-IV의 분류 체계는 Gerald C Davison & John M. Neale, 『이상심리학』(이봉건(역), 시그마프레스, 1999, 8쪽)에 의거함.

20) “他雖宗清淨之教 原不絕夫婦之倫…(中略)…莊生不是好色之徒 卻也十分相敬 真個如魚似水.”

21) 최정윤·박경·서혜희, 앞의 책, 44쪽.

22) 위의 책, 46쪽.

23) 같은 책, 81~82쪽.

내치니 사람들이 그 박덕함을 일컬었으며 초나라 위왕이 헛된 명성을 듣고 후하게 예를 갖추어 초빙하여 재상을 삼으려 하매 스스로 재주와 능력이 감당치 못할까 염려하여 도피하여 이 곳에 있는 것이로다. 언젠가 홀로 산에 갔다가 과부가 부채를 가지고 무덤을 부치어 흙이 마르면 시집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변변치 못한 망부(拙夫)가 그 과부를 희롱하여 비단 부채를 빼앗아 대신 무덤을 부쳐주고 그 부채를 가지고 돌아왔기에 내가 찢어 버리고 죽기 며칠 전에 한바탕 다투었으니 무슨 은애가 있겠느냐? 너의 주인은 젊고 학문을 좋아하며 게다가 귀한 왕손의 신분이니 田 종실의 딸인 나와 가문이 서로 대등하니 지금 혼인한다면 이는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로다.²⁴⁾

(6)은 문상객으로 온 초나라 왕손에게 반하여 결혼하고 싶은 의사를 비쳤을 때 왕손의 늙은 종이 두 사람의 결혼에 장애가 되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는데 그 중 두 번째인 ‘장생에 대한 의리’를 제시하자 그에 대해 전씨가 대답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전씨는 남편이 ‘인정이 없고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과부와 희롱한 것 때문에 남편과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장생도 자신의 행실이 잘못됐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술로써 자기 모습과 초나라 공자의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 전씨의 행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장생의 태도는 투사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심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투사의 심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부인하고 방출시키는 도구인 동시에 타인을 향한 공격성 또는 보복성을 정당화하는 도구’²⁵⁾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과부 사건 이후 전씨의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 전개 및 전씨에 대한 장생의 태도는 바로 이같은 투사심리의 진행과정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

그러면 왜 장생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고 도술로써 함정을 파 아내의 부도덕성을 유발하며 함정에 빠진 아내가 보인 행동에 대해 비난·모욕·자존감 훼손과 같은 언어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일까. 일단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생의 성격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이 글에서는 그 요인으로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²⁶⁾

먼저 부정망상을 가진 남편의 특징이라 할 아내에 대한 열등감 요인을 생각해 보자. 「장자휴」에 莊周는 덕이 높은 賢者로서 漆園吏라는 벼슬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²⁷⁾ ‘漆園吏’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벼슬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漆事’를 감독하는 관직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다.²⁸⁾ 어느 쪽이든 이것이 높은 관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전씨에 관한 내용을

24) “第二件 我先夫那裏就是個有道德的名賢。當初不能正家 致有出妻之事 人稱其薄德。楚威王慕其虛名 以厚禮聘他為相。他自知才力不勝 逃走在此。前月獨行山下遇一寡婦 將扇搨墳 待墳土乾燥 方纔嫁人。拙夫就與他調戲 奪他執扇 替他搨土 將那把執扇帶回 是我扯碎了。臨死前幾日還為他淘了一場氣 又什麼恩愛。你家主人青年好學 進不可量 況他乃是王孫之貴 奴家亦是田宗之女 門第相當。今日到此 姻緣天合。”

25) 최정윤·박경·서혜희, 앞의 책, 82쪽.

26) 최정윤·박경·서혜희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서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위의 책, 82쪽)을 들었고 이현수는 정신장애에 의한 이상행동의 다양한 예를 들고 그 원인으로서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앞의 책, 186~218쪽)을 들었다.

27) 『史記』 63권 「老子韓非列傳」 附 「莊子傳」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28) 다음 인터넷 자료에 의거한다.

<https://baike.baidu.com/item/%E6%BC%86%E5%9B%AD%E5%90%8F/10890747?fr=aladdin>

보면 장생이 맞이한 세 아내 중 세 번째에 해당하고, 齊王 종실의 딸이라는 높은 신분의 여자로서 姿色이 뛰어났으며 장생이 제나라에 머무는 동안 田宗이 그 인품을 중히 여겨 전씨를 아내로 삼게 했다고 소개되어 있다.²⁹⁾

여기서 세속적 영달이라는 점에 있어 변변찮은 처지인 남편과 높은 신분에 자색이 뛰어난 아내의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당시 나이 차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도 추측이 가능하다. 장생은 이미 덕이 높은 賢者로 명망이 있었고 전씨가 세 번째 아내라는 점 그리고 인용 (2) 장생의 대사에서 전씨를 ‘꽃같고 옥같은 나이’라고 표현한 것을 감안하면 장생은 중년 이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전씨는 그에 비해 한참 젊은 나이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가 중년 이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생의 死後 전씨가 문상객으로 온 젊은 초나라 공자에게 반한 것도 이러한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신분·지위·나이에서 오는 불균형으로 인해 장생의 내면에서 열등감이 싹틔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은 예 (6)에서 전씨가 초나라 공자에 대하여 ‘너의 주인은 젊고 학문을 좋아하며 게다가 귀한 왕손의 신분이니 田 종실의 딸인 나와 가문이 서로 대등하니 지금 혼인한다면 이는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로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 인용 예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앞에서 남편을 “拙夫”라 칭하면서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전씨의 태도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남편이 박덕한 성품이고 그의 명성은 虛名에 불과하며 남화산에 은거하는 상황을 능력이 부족하여 벼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도피해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과부를 둘러싼 사건을 젊은 여자와 희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생을 ‘변변치 못한 지아비’(“拙夫”)로 생각해 온 전씨의 속마음은 평소에도 어느 정도 표출이 되었을 것이며 남편으로서 장생의 열등감에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장생의 부정망상의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 상황을 들 수 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은 장생이 세속적 영달의 길을 버리고 아내와 남화산 깊숙이 은거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예 (6)의 전씨 말 중에는 남편이 ‘인정이 없고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장생은 사회적 교류를 피하여 정상적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³⁰⁾

이상의 논점을 근거로 장생을 편집성 성격장애를 지닌 동아시아의 오셀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단 오셀로의 경우 부정망상이 자신의 ‘밖’에 있는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장생의 경우는 자신의 ‘안’에 있는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즉, 오셀로가 주변 인물의 간계에 넘어가 아내를 의심한 것에 반해 장생은 편집적 성향의 성격으로 인해 아내를 의심한 것이다. 아내의 죽음 후 두 사람이 보인 태도의 차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셀로는 자신이 간계에 빠져 아내를 의심한 것을 알고 죄책감에 자살을 한 반면, 장생은 ‘결국

29) “如今說的是第三妻 姓田乃田齊族中之女 莊生游於齊國 田宗重其人品以取妻之。”

30) 망상장애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현수, 앞의 책(571쪽) 참고.

내 예측이 맞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안도하며 남녀 관계의 이치를 통달한 듯 아내의 주검 앞에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오셀로나 장생나 부정망상으로 인해 배우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장생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편집성 성격장애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다.

Ⅲ. ‘말해지는 장자’: 大道를 이룬 인물

이제 작자의 개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입화와 결미에서 장자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점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장자가 누구에 의해서 말해지는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화본은 하나의 서사 양식이므로 일반 서사체가 그러하듯 인물간의 대화와 이를 중재하는 서술자의 시점을 교체해 가면서 사건을 전개해 간다. 그러나 의화본은 화본의 체제를 모방한 만큼 說話人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 서사체의 특성인 ‘서술자’와 화본 및 의화본의 특성인 ‘설화인’의 존재를 구분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입화와 결미에서 話說 詩云이라는 말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설화인’과 내부 이야기인 正話를 이끌어 가는 ‘서술자’는 별개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¹⁾ 그리고 텍스트 밖에는 이들 텍스트 내적 존재를 조종하는 실재 ‘작가’가 존재한다.

「장자휴」라는 서사물을 탄생시킨 제작자로서의 풍몽룡은 때론 설화인의 탈을 쓰고 또 때론 서술자의 탈을 쓰기도 하면서 이야기 속에 침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를 통해 인물의 목소리에 침투해 들어가기도 한다. 설화인, 서술자, 인물 중 작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는 설화인의 목소리에 침투할 때이며 그 다음이 내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의 목소리에 침투할 때이다.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개입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Ⅱ장에서는 정화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장자의 모습에 대해 논했다면 이 장에서는 입화와 결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설화인과 정화 속 서술자에 의해 ‘말해지는’ 장자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입화부터 보기로 한다. 입화는 구체적인 이야기 정화에 앞서 기존의 시나 문구³²⁾를 인용하여 정화의 주제를 암시하는 구실을 하는데 「장자휴」의 경우 네 개의 문구와 각 시에 대한 해설 및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산문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입화 첫 부분은 ‘西江月’ 곡조³³⁾를 사용하여 인생무상을 노래한 詞 작품³⁴⁾이 소개되어 있는데 ‘부귀공명은

31)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설화인 또한 1인칭 서술자의 역할을 하므로 이 작품은 2중의 액자구성으로 되어 있고 설화인은 제1의 서술자, 정화 속의 서술자는 제2의 서술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2) 입화뿐만 아니라 정화에도 수많은 운문이 삽입되어 있는데 입화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나 문구를 인용하는 예가 많고 결미를 이루는 7언절구 한 수는 풍몽룡이 지은 것이다. 그리고 정화의 시나 운문은 풍몽룡 자신이 지은 것이지만 이야기 속 인물인 장생이 읊조린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꿈이나 뜬구름같은 것이고 눈앞에 있는 부모나 처자, 골육은 모두 참된 것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뒤를 이어 '자손들은 각자 스스로의 복을 타고 나니 자손들을 위하여 소나 말이 되지 말라'³⁵⁾고 하는 세간에 전해지는 俗言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 다음으로 부부간의 관계는 離合集散의 인연이라는 언급과 함께 '부부는 본시 같은 숲에 머무는 새와 같지만 날이 밝으면 각자 갈 길로 날아가 버린다'³⁶⁾는 내용의 시를 소개하였다.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가까운 인간관계를 들어 그것이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의 무상함에 대해서 가장 길고 자세한 서술을 곁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뒤에 이어질 正話가 부부간에 얹힌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세 편의 인용 뒤에 설화인은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莊生이 동이두드린 이야기(“如今說這莊生鼓盆的故事”)를 하려고 하는지 다음과 같이 산문서술과 한 편의 시로써 명백히 말하고 있다.

- (7)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생의 故事는 부부간에 화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질고 어리석음을 분간하여 참과 거짓을 간파하고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것으로부터 마음을 산뜻하게 놓아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점점 몸과 마음³⁷⁾이 청정해지고 도의 기운이 자라 저절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농부가 모를 심는 것을 보고 읊은 시가 있다.

“손에 푸른 모를 잡고 눈에 심네/ 머리를 숙이고 물에 비친 하늘을 보노라니/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도를 이루네/ 뒤로 물러나는 것은 곧 앞으로 나아가는 것”³⁸⁾

말미의 시는 唐末에서 五代에 걸친 시기에 살았던 布袋和尚 契此의 〈插秧詩〉- 혹은 〈插秧歌〉-로 道에 나아가는 것을 일상생활의 卑近한 일인 모심기에 비유하여 도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모를 심으려 고개를 숙이면 물에 비치는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일 즉 자신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退步”)처럼 보이지만 그 동안 수행을 하는 것이기에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일(“向前”)이 된다는 내용이다. 설화인은 말로 한 부분의 취지를 시로써 되풀이하고 있는데 양자를 견주어 보면 시에서 말하는 ‘퇴보’는 장생 부부간의 관계를, ‘향전’은 장생이 도를 이룬 것을 미리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입화는 세 편의 운문을 인용하여 부모, 처자, 골육 등 가까운 인간관계가 모두 참이 아니고 무상한

33) ‘西江月’은 원래 唐 教坊曲名인데 후에 ‘詞牌’로 이용되었다. 사패는 詞를 얹어 부르는 곡조를 가리킨다.

34) 詞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富貴五更春夢 功名一片浮雲 眼前骨肉亦非真 恩愛翻成讎恨 莫把金枷套頸 休將玉鎖纏身 清心寡慾脫凡塵 快樂風光本份.”

35) “兒孫自有兒孫福 莫為兒孫作馬牛”

36) “夫妻本是同林鳥 巴到天明各自飛.” 이 구절은 唐代的 승려 僧人 道世가 지은 『法苑珠林』의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有人耕田 被蛇咬而死 其婦對人曰 譬如飛鳥 暮宿高樹 同止共宿 何明早起 各自飛去 行求飲食 有緣即合 無緣即離 我等夫婦 亦復如是” 이로부터 ‘夫妻本是同林鳥 巴到天明各自飛’는 부부간의 聚散離合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37)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六根”인데 이는 眼·耳·鼻·舌·身·意를 가리킨다.

38) “如今說這莊生鼓盆的故事 不是唆人夫妻不睦 只要人辨出賢愚 參破真假 從第一著迷處 把這念頭放淡下來 漸漸六根清淨 道念滋生 自有受用 昔人看田夫插秧 詠詩四句 大有見解 詩曰 ‘手把青秧插野田 低頭便見水中天 六根清淨方為稻 退步原來是向前.’”

것이라는 일반적 警戒를 한 뒤 그 중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것이 남녀의 정이라고 하면서 장생 부부의 예를 들어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노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인은 입화에서 장생을 ‘부부의 문제를 통해 도를 이룬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결미 부분을 보도록 한다. 「장자휴」의 결미는 “詩云”이라는 상투적 어구와 7언절구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생에 대한 설화인의 시각, 정확히는 설화인의 탈을 쓴 작자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7언절구이다. 보통 의화본 소설 결미 부분에 제시된 시는 작품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요약함과 동시에 작중 인물과 사건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교훈을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8) 殺妻吳起太無知	아내를 죽인 오기는 너무 무지하고
荀令傷神亦可嗤	순령이 정신을 손상한 것 또한 우습도다
請看莊生鼓盆事	청견대 장생이 동이 두드린 일을 보시라
逍遙無礙是吾師	소요하여 걸림이 없으니 나의 스승이로다

이 시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 극단에 치우친 吳起(B.C 440~381?)와 荀令(163~212)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오기의 행적에서 비롯된 ‘殺妻求將’이라는 고사성어는 ‘아내를 죽여서 장수 자리를 얻는다’³⁹⁾는 의미로 명성이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순령은 後漢 때 인물인 荀彧을 가리키는데 그에게서 비롯된 ‘荀令傷神’이라는 고사는 ‘아내로 인해 상심한다’는 의미로 아내가 병이 들어 열이 나자 순령이 밖에 나가 冷氣를 취해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문질러 주었다는 일화⁴⁰⁾에서 나온 것이다. 설화인은 아내에 대해 너무 잔혹한 처신을 한 오기와 여색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인 순령이 모두 극단에 치우쳤다고 비난하면서 장생이야말로 걸림이 없는 中道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찬양한다. 아내의 시신 앞에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행위를 남녀의 정, 부부의 애착을 넘어서 초연한 경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Ⅱ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장생은 편집적 성향의 不眞妄想을 지닌 사람으로 否定的인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설화인은 그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내 전씨에 대한 설화인-정확히는 설화인으로 분장한 작자-의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남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긍정적인 인물일 때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남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부정적인 인물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아내 전씨는 장자의 덕을 높이기 위한 부정적인 면을 돋보이게 한 문학적 장치 즉 ‘포일’(foil)⁴¹⁾로 작용하는 것이다.

Ⅱ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듯 전씨는 남편에게 순종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안이나 신분에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은근히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내 나아가서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아내

39) 자세한 내용은 『史記』 63권 「孫子·吳起列傳」에 나온다.

40) 南朝 宋의 劉義慶이 지은 『世說新語』 35권 「惑溺」 편에 나온다.

41) 서사에서 주동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그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이를 ‘포일’ 또는 ‘포일 캐릭터’라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죽어 문상은 젊고 미남자인 초나라 공자를 보자마자 반하여 결혼을 하고 싶어한 다든가 장자가 도술로써 젊은 공자와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자 자신의 치부를 무마하기 위해 곧바로 장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지려 하는 장면을 통해 전씨가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풍몽룡이 장생의 아내 전씨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정화 부분에 내포된 작은 이야기 寡婦擲墳談, 즉 ‘남편 무덤에 부채질하는 여자’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풍몽룡이 중국에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우스개이야기를 모아 편찬한 笑話集 『笑府』에 수록되어 있다. 『소부』는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9권 『閨風部』에 〈擲屍〉(‘남편의 시신에 부채질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구풍부』에는 남녀간의 외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풍몽룡이 이 이야기를 여성의 성욕과 관계지어 수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소부』의 체제를 보면 이야기 뒤에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예가 많은데 〈擲屍〉의 경우도 여자의 행실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듯한 평어를 붙이고 있다. 이로 볼 때 풍몽룡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에게 ‘烈’에 대한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참고해 볼 때 「장자휴」에서 장생의 아내 전씨와 젊은 과부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풍몽룡은 장생을 이상적인 남편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색욕이 강한 아내를 등장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不貞한 아내는 장생의 덕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문학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입화와 결미에서 풍몽룡은 설화인의 목소리를 통해 장생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大道를 성취한 인물이라고 천명한다. 그렇다면 장생이 성취한 대도는 어떤 성격의 것일까? 正話 첫 부분에서 서술자는 ‘莊生’이 덕이 높은 성현(“高賢”)이며 노자를 만나 이미 도를 터득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의 도는 노자로부터 이어받은 사상을 집대성한 진리로서 이른바 ‘逍遙의 대자유’ ‘齊物論’ ‘無用의 用’ 등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말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南華真經』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그런데 결말 부분을 보면 『도덕경』과 『남화진경』만 빼고 다 불태운 뒤 세상을 주유하다가 大道를 이루어 仙化한 인물⁴²⁾로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장생이 大道를 성취하는 것은 『남화진경』 이후의 일이 되는 셈이다. 즉, 설화인을 빌려 풍몽룡이 말하고자 하는 장생의 대도는 우주의 哲理에 관한 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앞서의 인용 (7)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것 - 즉, 남녀의 정 - 으로부터 마음을 산뜻하게 놓아버리는 경지’까지 나아간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自然의 도 및 우주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에 더하여 인간사의 이치에 통달한 것, 다시 말해 ‘聖’과 ‘俗’을 아우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大道’라고 보았으며 이를 성취한 사람이 장자라고 본 것이다. 요컨대 설화인의 탈을 쓴 풍몽룡에 의해 말해지는 장생은 아내에 대한 中道の 태도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남편의 모델, ‘聖’과 ‘俗’을 아우르는 대도를 성취한 인물의 모습인 것이다.

42) “莊生大笑一聲 將瓦盆打破 取火從草堂放起 屋宇俱焚 連棺木化為灰燼 只有道德經南華經不燬. 山中有人檢取 流傳至今. 莊生遨遊四方 終身不娶. 或云遇老子於函谷關 相隨而去已得大道成仙矣.”

Ⅳ. 장자 수용자로서의 풍몽룡

앞 두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자휴」는 莊生이라는 ‘인물’, 인물의 대화를 연결해 가는 ‘서술자’, 인물의 대화와 서술자를 통해 정화를 이끌어 가는 ‘설화인’이 빚어낸 하나의 구조물이다. 정화에서 젊은 과부를 도와 부채질을 해주는 장생의 행동은 젊은 여성을 희롱하는 나이든 남자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서술자는 같은 인물을 ‘호색의 무리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전하를 주유하다 大道를 이루고 仙化한 인물로 서술하였고 설화인은 결미의 시를 통해 ‘남녀의 일에서 中道を 취한 진정한 자신의 스승’이라 선언한다. 이들의 존재는 이 구조물을 생산해 낸 총괄 감독자로서의 풍몽룡에 의해 고안된 일종의 서사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자휴」는 풍몽룡에 의한 ‘장자 수용’의 결과물로 규정될 수 있다.

「장자휴」는 풍몽룡에 의해 고안된 서사물이므로 그가 장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물의 성격 설정이라든가 서술자와 설화인이 장자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얼마나 직접적으로 혹은 강력하게 작자의 입장이 개입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 작자 풍몽룡이 장자를 어떤 시각으로 수용했는가 하는 것은 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는 장자를 ‘동이를 두드려 大道를 이룬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텍스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풍몽룡의 고안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하나의 서사작품 속에 장자를 이처럼 다면체와 같은 인물유형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작자로서의 풍몽룡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장자휴」의 正話는 ‘寡婦擲墳’ ‘莊生試妻’ ‘莊生成道’의 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셋은 의미전개상 대등한 것이 아니라 ‘莊生成道’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앞의 두 이야기는 이것으로 귀결되기 위한 종속적 단위라는 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남자 주인공의 아내이자 여자 주인공인 전씨의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휴」에서 조성된 미의식은 송고미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장자휴」는 ‘莊生’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어려움-아내의 자살-을 극복하고 큰 업적-成道-을 이룬 이야기로 귀결되고 이러한 패턴은 송고미의 본질이 되기 때문이다.⁴³⁾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자 풍몽룡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다. 가부장제란 ‘남성중심’과 ‘장

43) 이 글에서의 미유형 언급은 조동일의 미적 범주 논의(『한국문학의 양상과 미적 범주』,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 집문당, 1996)에 의거한다. 조동일은 미적 범주를 체계화함에 있어 ‘있어야 할 것’(이상)과 ‘있는 것’(현실)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양자의 관계가 ‘조화’(혹은 융합)와 ‘부조화’(혹은 대립)으로 파악한 뒤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조화의 관계에 있는 미의 식으로 ‘송고’와 ‘우아’를, 부조화 관계에 놓인 것으로 ‘비장’과 ‘골계’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송고는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우아는 ‘있는 것’을 중심으로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부조화의 범주 중 비장미는 주체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나 이것이 실제로 끝날 때 조성되는 미유형이며 골계미는 주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부정·파괴함으로써 웃음을 야기하는 미유형이라 하였다. 풍몽룡은 제목을 통해 이 작품이 아내의 죽음(‘있는 것’)을 통해 남편이 大道를 성취(‘있어야 할 것’)하는 이야기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내의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 현실이 장생의 成道에 의해 극복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송고미의 범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장생이 大道를 이루는 내용없이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전씨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부부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있어야 할 것’이 부정양상을 지닌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자살한 상황 즉 ‘있는 것’에 의해 부정·파괴되는 양상을 띠므로 비장미의 범주로 포괄된다.

자상숙'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지탱되는 이념이다. 가부장제 가치관 하에 쓰여진 담론들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부수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신화」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장자휴」에서 여성 인물(아내)은 남성인물(남편)의 자아실현 - 大道의 성취 - 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된다. 풍몽룡은 장자의 아내를 정욕에 사로잡히고 부도덕하며 순종적이지 않은 여자로 만들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장자의 아내는 정욕이 강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부장 사회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 「장자휴」에 구현된 장자의 모습은 복합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작자 풍몽룡은 직접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서술자나 설화인의 목소리를 빌리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자의 모습을 구현해 낸다. 남편으로서의 장자의 모습은 부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언어로 형상화하는데 있어 풍몽룡의 貞節觀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서술자나 설화인의 목소리를 통해서든 아내 전씨의 입을 통해서든 혹은 풍몽룡 자신의 직접적인 목소리든 간에 「장자휴」에 투영된 남편으로서의 장자의 모습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젊은 여자와 희롱하고 아내에게 허물이 있으면 가치없이 쫓아내는 남편, 둘째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무정한 남편, 셋째 아내와의 일을 통해 大道를 성취하고 仙化한 인물, 넷째 남녀의 일에 있어 吳起나 荀詵과는 달리 中道を 취한 인물이다. 표면상으로 작자 풍몽룡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습의 장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작품 行間에서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장자를 바라보고 있는 풍몽룡의 시선을 발견하게 된다.

앞서 인용한 결미의 시 (8)에서 “殺妻吳起太無知”라는 표현을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 『史記』 「孫子·吳起列傳」에 의하면 오기의 아내는 齊나라의 田居라는 대부의 딸로서 전거는 오기의 사람됨을 보고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겨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오기는 아름답고 賢淑한 전거의 딸을 좋아하여 결혼한 후에도 매우 금슬좋은 부부로 지냈는데 제나라 출신인 아내로 인해 자신이 장군으로 임명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가치없이 아내를 죽이고 장군이 되려 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오기와 장자의 아내는 모두 제나라 사람으로 田氏 성을 가졌고 자색이 출중하며 부부간의 금슬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기 아내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기록에 나와 있는 반면 장자의 아내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풍몽룡의 개인적 의도가 작용한 창작이다. 결국 두 사람의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공통점도 지니는데 다만 오기의 아내는 남편에 의해 직접 살해를 당했고 장자의 아내는 간접 살해를 당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장자를 오기에 빗대고 있는 풍몽룡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아내를 죽인 오기가 너무 무지하다고 비난하면서 장자는 그런 부류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장자를 오기와 같은 부류로 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으로서의 장자에 대하여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대 풍몽룡이 처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점과 한 개인으로서 풍몽룡이 가지고 있는 부부간의 信義에 관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풍몽룡이 전래하는 남녀간 사랑이야기를 묶어 펴낸 『情史』(1875년)⁴⁴⁾의 평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체 24권 882개의 이야기를 수록

44) 『情史』의 본래 명칭은 『情史類略』이며 일명 『情天寶鑑』이라고도 불린다.

하고 있는데 부부의 신의와 아내의 정절을 주제로 하는 제1권 「情貞類」를 총괄하는 논평 부분에서 풍몽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9) 종래로 충성하고 효도하며 절개를 지키는 일을 도리상 해야 한다고 여겨 행한 것은 마치 못해 억지로 한 것이었고, 지극한 정에서 우리나라와 한 것은 참되고 간절한 것이었다. 부부는 가장 비근한 경우이니 무정한 지아비는 의로운 남편(義夫)이 될 수 없고 무정한 지어미는 절개있는 아내(節婦)가 될 수 없다. 道理가 情의 규범이 된다는 것만 알지 정이 도리의 버리가 된다는 것을 범속한 儒者들이 어찌 알겠는가? 남자는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서 있으므로 맡고 있는 바가 크기에 미미한 義를 절박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지어미의 절조는 상세히 기술했고 지아비의 義는 간략하게 적었다.⁴⁵⁾

여기서 풍몽룡은 인간의 情이 도리보다 더 중요함을 말하면서 가장 비근한 예로 부부간의 정을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부부의 情의 문제를 아내만이 아닌 남편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정한 남편과 아내는 ‘義夫’나 ‘節婦’가 될 수 없다고 한 대목에서 「장자휴」 속의 장생과 전씨를 연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이처럼 남녀 정의 문제에 있어 남편과 아내를 동격으로 놓고 논하면서도 남자는 맡은 일이 크기 때문에 사사로운 義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함으로써 남자가 義를 벗어났을 경우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풍몽룡은 情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가 같지만 그것이 부부간의 信義나 貞節 문제에 이르면 남자(남편)나 여자(아내)의 경우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남자는 義를 다소 벗어났어도 용납될 수 있다고 하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풍몽룡은 장자를 오기의 부류로 보고 비난하는 듯한 어조를 보이면서도 결국은 그를 성현의 무리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살하는 것으로 결말지은 것과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처럼 풍몽룡은 장자의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상반될 수도 있는 장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대도를 성취한 인물, 스승으로 삼을 만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公의으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자를 무정한 남편으로 은근히 비꼬면서도 남자의 입장을 내세워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부의 신의, 남녀의 貞節에 관한 그의 개인적 가치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부부의 신의 문제에 있어 남편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아내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45) “情史氏曰 自來忠孝貞烈之事 從道理上做者必勉強 從至情上出者必真切. 夫婦其最近者也. 無情之夫 必不能爲義夫 無情之婦 必不能爲節婦. 世儒但知理爲情之範 孰知情爲理之維乎. 男子頂天立地 所擔者巨 咫尺之義 非其所急. 吾是以詳于婦節 而略于夫義也.” 풍몽룡, 『情史』上(유정일 역주, 學古房, 2015), 73쪽.

V. 나가는 말

「장자휴고분성대도」는 명나라 때 문인 풍몽룡이 지은 의화본 소설이다. 의화본은 기존의 話本을 읽기 위한 용도로 윤색하거나, 화본의 체제를 모방하여 讀物의 형태로 창작한 것을 가리키는데 화본처럼 입화-정화-결미로 구성된다. 본고는 이 작품이 사상가로서 장자의 公的인 모습보다는 남편으로서의 私的인 모습에 더 비중이 두어져 있다는 점과 장자에 대한 시각이 입화·결미 부분과 정화 부분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정화는 서술자가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에 비해 입화와 결미 부분은 설화인이 1인칭 시점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작자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정화에서는 장자의 모습이 주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양상을 띠고 입화와 결미에서는 설화인의 목소리를 빌린 작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띤다. ‘보여지는’ 장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말해지는’ 장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폈다. ‘보여지는’ 장자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는 부정망상을 지닌 남편의 모습으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면모를 ‘동아시아의 오셀로’로 파악하였다. ‘말해지는’ 장자는 대도를 성취한 인물의 모습이다. Ⅳ장에서는 이같은 차이가 유발되는 동인으로서 작자 풍몽룡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장자휴」라는 작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인 만큼 여성 인물 전씨의 입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남성 인물 莊生에만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여성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이 작품에 접근하는 논의는 다른 지면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司馬遷, 『史記』 63권 「孫子·吳起列傳」.

劉義慶, 『世說新語』 35권 「惑溺」.

莊子, 『南華真經』.

馮夢龍, 『警世通言』,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6.

馮夢龍·유정일 역주, 『情史』 上, 學古房, 2015.

李鉉洙, 『異常行動의 心理學』, 大旺社, 1976·1988.

최정운·박경·서혜희,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0·2017.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윌리엄 마이쓰너·이재훈 옮김, 『편집증과 심리치료』, 1998.

Gerald C Davison & John M. Neale·이봉건(역),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1999.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12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Story of *Jangja* Who Accomplished Great Awakening by Playing the Jar”

Shin, Eunkyung*

This work is a *uihwabon* novel by *Pung Mongnyong* who was active in *Myung* Period. *Uihwabon* novels, a new style narrative form which remodelled existing *hwabon*-a kind of storytelling performance-based texts-as something for reading, comprise prologue, body and epilogue. This work is notable in the two aspects as follows: one is that in this work the figure of *Jangja* as a husband is more empathized than as a taoist, the other i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one to describe *Jangja* between the parts of prologue and epilogue and body part. Unlike in the body part the third-person narrator describes *Jangja*'s character, in the parts of prologue and epilogue the storyteller leads the story and describes *Jangja* with first-person narrator's point of view, to the extent that the writer becomes easily involved in the story and the description of *Jangja*. As a result in the body part the character of *Jangja* tends to be “shown” by his dialogues and actions, in the rest two parts that tends to be “told” by the writer who disguises as storyteller. I would focus on *Jangja*'s figure that is “shown” in chapter II and on *Jangja*'s figure that is “told” in chapter III, thereby exploring *Jangja*'s character as a husband who is possessed with ‘infidelity delusion’ in chapter II and that as a great person who achieved “awakening.” In chapter IV I would consider writer *Pung Mongnyong*'s way of thinking as a background to cause such a difference.

[Keywords] *Jangja*, *Pung Mongnyong*, Gyeongsetongeon, prologue, body, epilogue, storyteller, infidelity delusion,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defense mechanism

* Professor, Woosuk University